

■ (언론 동향) 2022.2.25.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올 들어 두번째 사료가격 인상 예고..농가도 업체도 괴롭다

사료업계에서는 원료 수급 불안과 물류비 상승, 불안한 국제 정세와 환율 인상이란 여러 악재가 겹치며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축산업계는 농가와 사료업체 모두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계속 인상되는 사료값, 농가 버틸 재간 없다

A사, 3월부터 인상 예고, 지난해 두세 차례 인상 후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축산업계에 따르면 사료업체 A사가 최근 ‘사료가격 인상 안내’ 공문을 각 지역 사업소와 농가 등에 알렸다. 3월 1일부터 kg당 양돈 54원, 축우 40원, 양계 30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두세 차례에 이어 올해 들어 1월 인상 이후 다시 사료 가격이 오르면 농가들은 1년 만에 최대 네다섯 차례나 사료값 인상을 감내해야 한다. 양돈을 보면 사료값만으로 1년에 kg 당 200원가량 인상된 것으로 사육 평균 농가가 사용하는 월 100톤 기준 2000만원 이상의 생산비용 상승을 불러온다.

#사료업체도 악재 겹쳐

원료 대부분 수입산 의존, 국제 곡물가격 치솟아 막막

사료업계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3월 인상을 예고한 A사 관계자는 “사료값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사료값은 그대로 둔 채 품질을 낮추면 이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농가·사료업체 상생 방안 마련해야 “원료수입 지원 등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곡물 수입 단계에서의 일정 부분 지원 등 원자재값을 낮춰주면 사료업체도 살고 농가 역시 도움을 받아 소비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농가와 사료업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정욱 기자 >